

LPG 할당관세 1%만 인상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최근 정부는 세수부족분의 충당을 위해 LNG와 LPG 등에 부과되는 할당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LNG와 LPG의 관세율을 각각 LNG 1% → 2%, LPG 1% → 3%로 인상을 추진했었다.

이에 우리협회, LPG수입사·대한LPG협회는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LPG관세의 현행유지 내지는 LNG와 동등한 세율 적용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또한, 법인·개인택시연합회·택시노동조합 등 택시업계에 지원을 요청,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를 통해 LPG관세율을 당초 안 3%에서 2%로 인하하는데 성공했다.

♣ LPG관세율 LNG와 동일하게 조정('09.6.1)

구분	기본관세율	현재	'09.7월	증감
원유	5%	3%	3%	-
휘발유/경유/등유	5%	3%	3%	-
LNG	3%	1%	2%	1%
LPG	3%	1%	2%	1%

* '09.7.1부로 시행

이번 관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LPG가격 인상분은 약 6원/kg(3.5원/ℓ)이며, 향후 우리협회는 LPG연료의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를 위해서 LPG수입사 및 택시업계와의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해 나갈 예정이다.

* 할당관세 :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임

□인터뷰 - 양응철 현대차 연구개발총괄사장

현대기아車 LPG 하이브리드 “꿈의 연비 이뤘다”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금석을 쌓는다. 내달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모델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LPG+휘발유) 출시를 앞둔 28일, 한양대 개교기념 행사서 만난 양응철 현대차 연구개발총괄사장은 자신에 찬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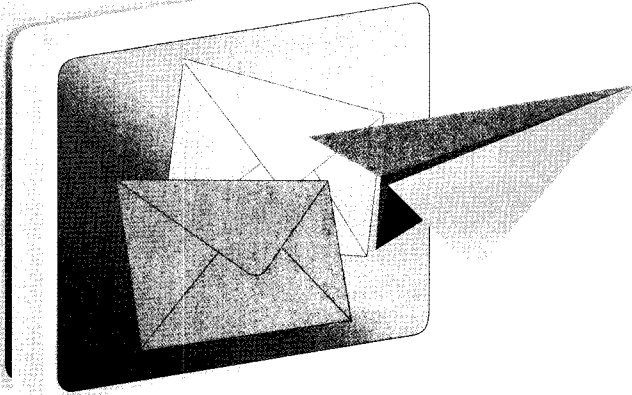
그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를 가솔린 모델의 연비로 환산하면 21.6km/l 수준”이라며 “빼어난 연비 뿐 아니라 출력 등 성능도 만만찮아 고객들의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현대기아차의 전 라인업을 오는 2~3년 내 새 모델로 완전히 교체할 예정”이라며 “(중형 해치백 등) 파격적인 크로스오버가 이뤄져 SUV가 더 이상 SUV가 아닐 정도의 혁신적 변화가 있을 것이며 RV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등 신개념 자동차 출시에 이어 현대기아차의 R&D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의미다.

소형차 부문에 LPG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현대차는 내년 10월 출시 예정인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순차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동급에서 연이어 새 모델을 쏟아내며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 사장은 “내년 10월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최대 시장인 미국에 먼저 출시한 후 이듬해 초 국내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엔진이나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로체 등) 동급의 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도 곧바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18년간 미국 포드에서 자동차 개발을 전담해 온 양 사장은 지난 2004년부터 부사장으로 현대기아차그룹에 합류해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한국LPG가스공업협회

LPG업계 주요 이슈

- ▶ LPG 거래상황기록 보고 창구 단일화
- ▶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 'LPG 가격 인하 정부가 앞장서달라'
- ▶ 올해 1분기 국내 LPG소비 1.3% 증가



LPG 거래상황기록 보고 창구 단일화

사업자단체서 집계토록, 미보고업소 처분 강화

앞으로 LPG사업자는 거래상황기록을 가스안전공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 단체에만 보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LPG사업자가 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거래상황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 이원화 체계를 사업자단체로 일원화시킬 방침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데는 LPG 거래상황 보고창구를 사업자 단체로 일원화함으로써 보고율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및 안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사실 거래상황보고제의 도입 5년이 지났지만 보고율은 70%대를 넘나들 뿐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LPG거래상황을 보고한 충전 및 판매업소는 4,320개소로 보고대상 업소 6,459개소에 67% 수준이다. 일부 지역 판매업소의 보고율은 2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충전소는 1698개 업소 가운데 1350개소가 보고해 80%의 보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판매업소는 보고율이 62%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대상 업소 4761개소 가운데 2970개소만이 거래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지역별 거래상황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간 충전소와 판매소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경남 지역 충전소에서는 보고율이 90%를 웃돌고 있고 대구 지역 충전소는 100%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소는 부산, 대구, 대전, 경남이 90%이상의 보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 인 보고율은 미진한 편이다. 광주 39%, 울산 29%, 경기 29%, 충남 36%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강원도는 보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4%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여부,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보고업소의 전산시스템 구축여부에 따라 지역별 보고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경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로 미보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경부는 거래상황 기록보고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정되면 관련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수행하도록 권고해 거래상황 보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석유가스신문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벌크로리 소유 의무화...위탁운송 예외적 허용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이 종 전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확대된다. 또 안전관리 우수자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기준이 완화되고 우수 인증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용적 1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LPG의 경우 저장소 허가기준을 총 저장량 250kg에서 500kg 이상으로 완화된다.

충전사업자의 경우 보유, LPG판매사업자는 확보로 규정된 벌크로리 보유요건을 충전 및 판매사업자 모두 이를 소유토록 하고 가스수급 안정 및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한적으로 위탁운송을 허용했다.

위탁운송은 벌크로리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한 자로 하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벌크로리 10대이상 보유,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운전자 교육을 받은 자가 가스공급, 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별표 22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고용하도록 했다.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 전화번호를 도색으로 가로 및 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시 안전관리 의무는 LPG를 공급하는 위탁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적법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위탁운송을 하는 자에 대해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벌크로리를 통해 LPG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에게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충분한 부지를 확보토록 했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도 정례화됐다. 안전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한번 실시하던 것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매 3년에 1회로 정례화했다.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전부 생략제도를 개선했다. 설계단계검사는 최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실시하며 생산단계 검사는 사고개연성이 높은 LP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등 5개 제품에 대해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LPG자동차 충전소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기준도 완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8m 이상 이격을 의무화하고 음식점 등의 설치는 금지된다.



한편 판매업계는 위탁운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벌크로리 보유요건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LPG 가격 인하 정부가 앞장서달라’

택시 장애인단체, 관세율 인하 공동 건의

택시사업자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대표적인 LPG 소비층이 LPG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본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공동으로 26일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 부에 수송용 부탄 가격 대폭 인하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6월 LPG 수입사의 수송용 부탄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지난해와 같이 수송용 부탄에 서민생활 필수 지정 및 할당관세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장애인 단체는 정부가 올해 3월부터 부탄에 1%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어 오는 7월부터 3%의 기본 관세율을 모두 부과한다는 계획에 따라 리터당 약 15원 수준의 수송용 부탄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며 건의문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 및 장애인 단체는 정부의 명분 없는 부탄가격인상 정책에 반대하고 공급자의 합리적인 이익추구와 소비자의 권익보장 등을 위해 정부가 6월 이후 수송용 부탄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LPG연료의 주 수요층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수송용 부탄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자 및 장애인 단체의 입장이다.

한편, 6월 LPG 내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LPG가격이 프로판의 경우 톤당 15달러 내린



380달러, 부탄은 5달러 내린 400달러로 결정됐고 5월 평균 환율이 외환은행 기준 지난달에 비해 138원 내린 1257원을 기록하고 있어 내달 LPG내수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출처 : 석유가스신문

올해 1분기 국내 LPG소비 1.3% 증가

프로판 0.8% 감소, 부탄 3.0% 늘어

올해 1분기 동안 국내 LPG소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집계한 2009년 1분기 국내 LPG소비현황에 따르면 총 226만9000톤이 소비돼 전년 동기 223만9000톤에 비해 3만톤(1.3%) 가량 소비가 늘었다. 프로판의 경우 총 95만4000톤이 소비돼 전년도 96만2000톤에 비해 800톤(-0.8%)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정·상업용 소비는 53만2000톤으로 전년 동기 55만9000톤보다 2만7000톤(-5%) 줄었으며 산업용은 15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 19만7000톤에 비해 무려 4만2000톤(-21.3%) 감소했다. 다만 석화용은 24만톤으로 전년 동기 18만톤에 비해 6만톤(33.4%) 늘었으며 도시가스용은 2만7000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00톤 늘어났다.

부탄의 경우 총 131만 5000톤의 소비실적을 올려 전년 동기 127만7000톤에 비해 3만8000톤(3%)가량 늘어났다. 수송용은 106만6000톤으로 전년 동기 105만9000톤에 비해 7000톤(0.6%)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가정·상업용 수요도 5만2000톤으로 1000톤 늘었다. 다만 석화용은 16만 2000톤이 소비돼 전년 동기 13만 6000톤에 비해 2만6000톤(18.9%) 늘었으며 산업용은 3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 3만1000톤보다 4000톤(12.9%) 소비가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총 LPG수요 중에서 프로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04%, 부탄은 57.95%로 전년 동기에 비해 프로판은 0.92%p 감소했다. 한편 수입사 관계자는 “프로판 수요 중 산업용의 경우 가격경쟁력 악화와 경제침체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했으며 부탄 석화용의 경우 나프타 대체 수요로 사용량이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출처 : 가스신문